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복음서)

김창세 선교사

목차

서론	4
“말씀이 육신이 되어”(1) (요 1:1-4, 9-14)	5
“말씀이 육신이 되어”(2) (요 1:1-4, 9-14)	8
“말씀이 육신이 되어”(3) (요 1:1-4, 9-14)	12
“말씀이 육신이 되어”(4) (요 1:1-4, 9-14)	17
“말씀이 육신이 되어”(5) (요 1:1-4, 9-14)	23
“말씀이 육신이 되어”(6) (요 1:1-4, 9-14)	27
“말씀이 육신이 되어”(7) (요 1:1-4, 9-14)	31
“말씀이 육신이 되어”(8) (요 1:1-4, 9-14)	34
피하시는 예수님 (마 2:13-18)	38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1) (마 16:21-23)	42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2) (마 16:21-23)	47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3) (마 16:21-23)	51
겻세마네 기도 (1) (눅 22:39-46)	55
겻세마네 기도 (2) (눅 22:39-46)	59
겻세마네 기도 (3) (눅 22:39-46)	62
겻세마네 기도 (4) (눅 22:39-46)	66
겻세마네 기도 (5) (눅 22:39-46)	69
겻세마네 기도 (6) (눅 22:39-46)	72
겻세마네 기도 (7) (눅 22:39-46)	75
겻세마네 기도 (8) (눅 22:39-46)	79

잡히시는 예수님 (요 18:1-14)	83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1) (요 18:28-19:16)	86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2) (요 19:13-16)	93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1) (눅 23:26-32)	98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2) (눅 23:26-32)	101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3) (눅 23:26-32)	10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 (막 15:21-32)	108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 (막 15:21-32)	111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3) (막 15:21-32)	115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1) (눅 23:34-43)	119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2) (눅 23:34-43)	123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3) (요 19:25-27)	126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4) (마 27:45-49)	130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15:33-36)	134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5) (요 19:28-30)	139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6) (요 19:28-30)	143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7) (눅 23:44-46)	146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요 19:30; 막 15:42-46)	149
부활하신 예수님 (1) (요 20:1-10)	155
부활하신 예수님 (2) (마 28:1-15)	159
부활하신 예수님 (3) (눅 24:1-12)	163

결론

167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고전 9:16-17, 현대인의 성경).

지난 해 승리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으로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세 선교사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매주 수요 예배 때 선포하신 로마서 5-8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로마서 5~8장)”이란 제목아래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의 책을 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김창세 원로 목사님의 두 번째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복음서)”를 내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책도 원로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하신 설교 말씀을 부족한 종이 노트를 적고 이렇게 말씀 목상의 글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책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잘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23년 1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합니다(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길 기원합니다(빌3:8).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므로(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확신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랑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만물(“천지”)의 시작을 말합니다[중국 성경은 “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기초”를 의미함]. 우리도 그 만물에 속했기에 우리에게는 시작(생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언제 계셨습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2-3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영화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요1:1)란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인 그 때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 즉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현대인의 성경)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장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사 애굽으로 보내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어 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라고 여쭙었고(13절)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였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요10:30)도 “스스로 있는 자”[“스스로 존재하는 자”(현대인의 성경)]이십니다. 여기서 “계시니라”(요1:1)는 말씀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때부터 계신 분이란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태초에도 계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1절)란 말씀은 홀로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1절)란 말씀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1절)은 “생명”(4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1:4)란 말씀은 성자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아 가는데 헌신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 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새 찬송가 453장).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요1:14).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출3:14)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요1:1).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10:30)(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빛이십니다. 성령님께서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확신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2)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1절)란 말씀은 홀로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1절)란 말씀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합니다(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 목상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신6:4),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갈3:20),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2:19). 마귀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바로 믿으면 “아빠 아버지”(막 14:36, 롬8:15, 갈4:6)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단수(singular)가 아니라 복수(plural)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했다면 “내 형상,” “내 모양,” “내가”라고 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

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내가”는 단수로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복수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31:31),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히10:15-16).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골2:3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요엘 2장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4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만 자기고 계신 성품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성경은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편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성령님도 어디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도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창조: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 부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부활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께서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지만(왕상17:17-22) 그것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린바 된 것이 아닙니다.

(3) 영생(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
님께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3)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성경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자 예수님의 탄생(강생)을 예언한 말씀으로서 강림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속성)을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물은 다 변해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1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성경은 “주는 여전하여”[“주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2)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3)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십니다(무소부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무소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내 주위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즐거들입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1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케 하십니다(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이시요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란 부활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14절)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심”이란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요 자동태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살전4:16)이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신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고”란 말씀은 그들이 다시 살 것(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14절),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호령”(16절)이란 주님께서 호령하시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서(요11:39)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호령하셨습니다)(43절). 그 결과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44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라’고 호령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부활케 하십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요, 다 동등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고 또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요, 다 동등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습니다.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성경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그는”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7절; 요1:14).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은 “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속성)을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요, 다 동등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고 또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 이단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4)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이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이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하나님”(1절)이시며, “육신”은 사람(인간)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죄와 관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또는 죄에 속한 사람, (2)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또는 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에서 “육신”이란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육신”이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이란 말씀은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기”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이란 힘이 없는 것(연약함)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신 분 또는 연약하신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지 못하셨을 때 피곤해하셨고, 식사를 하지 못하셨을 때 주리셨고, 마시지 못하셨을 때 갈증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지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께서 시장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3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4절; 신8:3인용)라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유혹을 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서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을 때(3절)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4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수가라는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셨고(5절)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래도 앉으셨습니다(6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마름으로 인해 죄에 빠져 죄를 범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 9명은 동산 입구에 두시고, 세 명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36-37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돌아와 보니 그 세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39-40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41절). 그 세 제자들은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세 제자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습니다(43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1)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70절), (2) 그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72절), (3)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74절). 이것이 죄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75절). 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탄과 그의 종개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14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살전2:13)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요일2:14). 새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3절 가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사탄과 그의 쫓개들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사람)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그는”이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요 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2:6-7).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신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했을까요? 한 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온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예수님께서서는 강생(뜻: 신이 내려오심)하셨습니다. 그분은 갓난아기(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장하시고 평민으로 사셨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평민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사셨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마1:18).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4-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시사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사람)이 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2가지입니다: (1)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고, (2) 예수님은 영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현대인의 성경) “살아 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 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1:14)는 말씀은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람(“육신”)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1절)의 존재에 있어서는 시작이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사람)이 되셨을 때는 시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정확한 날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의 시작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시작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요 완전하신 사람이시요 영원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시사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사람)이 되시므로 이 땅에서는 시작(탄생)과 끝(죽으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지요 완전하신 사람, 영원하신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어 구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사탄과 그의 즐거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으니 우리 모두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전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5)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1)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2)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3)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사람)이 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또는 ‘장막에서 산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막”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구절은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는 사람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창12:1-3)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그의 나이 75세) 그는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처럼 집을 저서 살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되 한 100년(그가 175세에 죽었기에)이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한 100년 동안 살다가 그의 나이 175세에 죽었습니다(25:7).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2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 또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소 또는 성막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성소와 지성

소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26:3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소에는 일곱 등잔대가 있어서 밤낮 성소를 환하게 했지만 지성소에는 등잔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기에 환하게 밝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성소를 지었습니다(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소/성막/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14).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에 있는 휘장에 찢어져 둘이 되므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 성소에도 계시므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사7:14)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임마누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계십니다. 함께 계시되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20). 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1)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그리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였습니다(20절). 그래

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14:6-7)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8절). 그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자 임니다. 여기서 “나타내셨으니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자세하게, 감추인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임니다.

(2)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말씀은

죄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그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체험적으로 아시고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둘째 목적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3)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까지 체험적으로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사람)이 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1:14).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되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더욱더 알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

리를 제일 잘 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사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6)

[요한복음 1장 1-4, 9-14절]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사람)이 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를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쪽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교제하셨습니다(8절).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기 때문입니다(창3:6).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7-8절). 그리고 아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17-19절).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롬5:10).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는 한편만 위해서는 안 되고 양편을 위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되[“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1:14)]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일 그 분이 죄가 있으시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만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시장하시고, 목말라 하시며 피곤하셨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기에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험도 다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를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훌륭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롬5:10).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11절). 에베소서 2장 11-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 때”(11, 12절)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때”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12절).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13절). 하나님과 원수 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었습니다(12절). 그러나 “이제는”(13절)(“이제”란 아주 강세를 표시함)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13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14-15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에 있는 휘장에 찢어져 돌이 되므로(마27:51)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 성소에도 계시므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셔서 교제하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19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가정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시고(롬8:29), 맏형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히2:11).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7)

[요한복음 1장 1-4, 9-14절]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사람)이 되신 세 번째 목적은 죽으시기(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대신 죽을 수가 없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므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이란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요1:14). 그 목적은 2가지입니다: (1) 첫 번째 목적은 섬기는 것, (2) 두 번째 목적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

오늘은 첫 번째 목적인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기도회 때 두 번째 목적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우리는 결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정도로 낮아지심은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된다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지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 하나님(“말씀”)이 사람(“육신”)이 되신 것이요, 종이 되신 것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계층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당시 사회의 하류계층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인터넷).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사 섬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특히 13-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어 줄 정도로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면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란 여자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행16:14) 그 집에서 모임이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여자의 이름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권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강조한 것은 그 두 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여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여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2:3). 그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엡 4:3).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면(빌2:8) 우리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기까지 섬기지 못했으면 섬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결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9-11절).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기까지 섬기시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지극히 낮아지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8)

[요한복음 1장 1-4, 9-14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섬기라는 것이었나요? 답은 하나님의 뜻은 섬기라는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섬겼을 텐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여자 하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창3:1)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 미혹에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5절). 사탄인 뱀이 왜 여자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타락한 천사요 악한 천사인 사탄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내 자리를 높이”길 원하며,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으로 가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창2:9)의 열매를 먹게 만들려고 하와를 미혹함에 있어서 “너희가 …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3:5).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편 아담에게 주므로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6절).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2:17)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5:12). 결국 한 사람인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12절).

사탄의 미혹의 핵심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삼서 1장 9-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이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하기보다 대접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빌4:2)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성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엡4:3).

그러나 “둘째”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고전15:45, 47)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2:6-7).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 인생은 한 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등등 그 분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시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5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8-36절을 보면 키우던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소 주인이 이를 방치하여 사고가 생겼을 때 소와 소의 주인이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소 주인이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기에 주인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 주인이 죽은 사람에게 대한 배상금을 재판장이 정한만큼 내게 되면 풀어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족의 생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만일 소에 받혀 죽은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일 경우 그렇게 소와 그 소 주인을 죽여 원한은 풀 수 있겠지만, 남은 가족은 당장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소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집의 남은 식구 역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되기에(인터넷)]. 그래서 소 주인이 죽은 사람에게 대한 배상금을 재판장이 정한만큼 내게 되면 사형(죽음)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물”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이나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고 나왔을 때 그 노예 몸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김의 삶을 살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빌2:8).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성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성김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 성령님께서서는 기도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눅11:13). 우리는 술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엡5:18)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 받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일에 힘써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피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장 13-18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 9-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제목아래 여덟 번 묵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요(요1:1),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1절),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빛인 생명이 있습니다(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33년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33살에서 십자가의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18절을 보면 어리셨을 때에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리셨을 때에 피난 생활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이란 동방 박사들을 가리킵니다(1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몇 사람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대개 3사

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11절).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1-3절). 헤롯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4절). 그러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의 기록에 근거해서 대답을 했습니다(5-6절). 그래서 헤롯왕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7-8절). 동방 박사들이 헤롯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9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10절).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11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12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했습니다(13절).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14-15절). 왜 아기 예수님께서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15절). 여기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요19:3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예수님의 초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예수님의 재림). 디모데전서 6장 14-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서 또는 헤롯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 2:13-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굽으로만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정하신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54절 말씀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에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숨고 피하신 이유는 두려움이 많으신 연약한 분 이래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2:1-11),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으며(6:1-15), 바다 위로도 걸으셨으며(16-21절), 죽은 자인 야이로의 딸(막5:21-24, 38-43)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눅7:11-17)이나 나사로(요11:1-44)를 살리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서는 헤롯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피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을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그 우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눅23:1-4),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14-15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22절)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고자 했습니다(20절).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난민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는 애굽으로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세우시는 일에 겸손히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진실하신 언약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역을 일관성 있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1)

[마태복음 16장 21-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마태복음 2장 13-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갈4:4) 애굽으로 피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 번 피하시고 숨으시곤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셨습니다(롬5:6).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고(갈4:4),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롬5:6)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딤후1:14-15).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마16:21).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 때로부터 …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때로부터”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란 질문(13절)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15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7-19절)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0절).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21절). 즉, “이 때로부터”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18절)고 말씀하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21절). 예수님께서서는 전에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밝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였고(마9:15),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요2:19). 그러나 “이 때로부터”(마16:21)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때로부터” 밝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말씀하셨습니다(21절).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죽으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1절)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3, 9절)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대하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3절) 3일째에(4절, 현대인의 성경) 모리아 땅에 도착하여 멀리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4절) 아브라함은 그의 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5절). 그런 후 그는 이삭에게 번제 나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6절)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여쭙었고(7절) 아브라함의 답변은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였습니다(8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 숫양을 친히 준비하셨으므로(13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13절).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불렀습니다(14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마13:7)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마태복음 23장 21절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27:46) 그 아들을 위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창22:8). 즉,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레”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8절)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2)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케 하므로(1-4절) 그 결과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가 70,000명이나 되었고(15절, 현대인의 성경)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21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선지자) 갓의 말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았는데(18-25절) 이 아라우나(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아라우나(오르난)에게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길 원하여 상당한 값으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대상21:24)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26-27절). 결국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그 천사가 있었던 곳이 바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모리아 산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삼하24:16).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진노를 쏟으시매 있어서 멈추지 않으시고 충분히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요일4:10).

(3)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치라고 명하신 “모리아 산”이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장소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2:19).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육체[“자신의 몸”(현대인의 성경)]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21절). 곧,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언(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말형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시116:15). 비록 사람들 보기엔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이요 가장 소중한 죽음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2)

[마태복음 16장 21-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서 두 번 더 나옵니다(17:22-23; 20:18-19). 마가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막8:31-32). 마가복음에도 두 번 더 나옵니다(9:30-32; 10:32-34). 누가복음에도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눅9:22).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드러내 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눅9:44-45).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첫 번째 말씀(마16:21; 막8:31-32)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드러내 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두 번째 말씀(눅9:44-45)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태/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딤후3:16) 또한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할 것이기 때문에(벧후1:2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된 말씀은 결코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누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눅9:44-45)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록과 비교하기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과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기록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마17:22-23). 마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을 보십시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막9:30-32). 이 세 말씀들을 비교해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숨긴 바 되었다’는 말씀(눅9:45)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숨기셨다기보다(그 근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련함과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기에(눅24:25) 누가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그들이 깨닫지 못함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숨기셨다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기에 숨긴바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때로부터” 밝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죽으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마16:21). 이 예수님의 죽으실 장소였던 예루살렘은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받치라고 지시한 장소였던 모리아 산이요(창22:2, 3, 9, 대하3:1), (2)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진노하사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한 장소였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요(삼하24:16), 또한 (3)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대하3: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을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마16:21).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셋째 날에”[“3일째에”(현대인의 성경)]란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나 1장 17절과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현대인의 성경) 있었다는 말씀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행13:35, 현대인의 성경).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4-35절 설교 때에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리 증언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이렇게 구약 성경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살전4:16)[참고: (고전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빌립보서 3장 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죽으심과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심 (3)

[마태복음 16장 21-23절]

마태복음 16장 21-23절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이 때”란 시몬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라고 신앙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을 때부터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이 반석(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19절). 또한 여기서 “예루살렘”(21절)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서 (1)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모리아 산이었고(창22:2, 3, 9, 대하3:1), (2) 다윗 시대 때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으며(삼하24:16), (3) 솔로몬 시대 때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장소로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대하3:1).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 당시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기에 막강한 권한(심지어 사람을 죽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시니”란 말씀은 “드러내 놓고”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막8:32). 이 전까지, 즉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공개적으로(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15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14절)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란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들러 옆으사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13-16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물었고(18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21절),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22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 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비공개적으로)만 말씀하셨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부터는 공개적으로(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말했습니다(마16:22).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23절). 이 얼마나 간교한 사탄의 유혹입니까. 이 유혹은 사도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빠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보시고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마16:23; 막8:33) 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마16:22,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고전15:3)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1) 첫째 유혹: (눅 23: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2) 둘째 유혹: (36-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 셋째 유혹: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해서 죽지 않으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관리들"(35절), "군인들"(36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39절)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유혹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마16:21)에서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빼놓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만 강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살전5:13).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고전15:3-4).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1:16). 예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죽으시고 제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겻세마네 기도 (1)

[누가복음 22장 39-46절]

누가복음 22장 39-46절은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 내용으로서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21-23절에서 세 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21절)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46절의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 기도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접속사는 앞에 말씀과 연결해 주는 고리로서 그 앞에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요17장)에 나가셨던 것입니다(눅22:39).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사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가롯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장소를 여러 번 많이 가셔서 습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3절).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화된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도 습관화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 “겻세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겻세마네 동산이 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 예수님께서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눅22:39) 안에 있는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셔서 그 입구에서 8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마26:37)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막14:33) 겻세마네 동산 안으로 가셔서(마26:36-37)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3명의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눅22:41).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면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41절)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앞드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눅22:43).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44절).

누가복음 22장 45-46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고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셨을 때 그 세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5-46절)(누가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의 3번의기도 중 첫

번째 기도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막14:27-29). 그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힘 있게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30-31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마26:40).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41절)(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일 많이 기록했는데 여기 41절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기록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42)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마가복음 1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신 후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셨을 때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었습니다(43절). 그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막26:40). 마태복음 26장 44-4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막14:41-42)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마26:47; 참고: 막14:43).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후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요18:1-2). 예수님께서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오는 것을 아시고도 습관을 따라 겿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 큰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소”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있었습니다(요 18:4-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6절).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와중에서도 그 큰 무리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8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붙잡히시면 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9절). 그 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10절).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붙들려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겻세마네 기도 (2)

[누가복음 22장 39-46절]

마태복음 26장 36-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이에”(36절)라는 접속사는 앞에 말씀과 연결해 주는 고리로서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요17장)에 나가셨습니다(눅22:39). “이에”(마26:36)라는 접속사가 그 앞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31-35절 말씀과 그 뒤의 말씀과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그 앞의 말씀을 보면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흠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절). 여기서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흠어지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흠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흠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내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요10:11, 14)을 치시므로 “양의 때”인 예수님의 제자들(가롯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흠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마26:33).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34절). 그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35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35절, 현대인의 성경).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팔려고 나간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눅22:39) 안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마26:36)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겿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마26:36)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37절)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막14:33) 겿세마네 동산 안으로 가셨습니다(마26:36-37). 가실 새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3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3명의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한 10미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눅22:41).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38절)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3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41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3제자들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37절)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신(38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예수님께서서는 성감을 받으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도우시려고 오셨기에(20:28)]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31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고(31절) 또한 베드로의 경우에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34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41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41절)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눅22:45; 막14:40).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는 그 다음 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므로(눅22:44)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고난의 잔”(42절,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를 위해 다 마시므로[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4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26:38), 즉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41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41절)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므로(눅22:45; 막14:40) 결국 시험에 들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므로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6-27절과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현대인의 성경).

둘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마26:4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8:26, 현대인의 성경) “힘을 북돋아” 주시는(눅22:43,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마26:38; 롬8:34)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마26:41).

셋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요일3:9), 즉 “썩지 않을 씨”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벧전1:23-25),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롬1:16)을 계속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요일5:4-5).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버리고 싶은 시험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시험이나 주님을 떠나고 싶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죽음)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롬8:35, 37절).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받아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겻세마네 기도 (3)

[누가복음 22장 39-46절]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 전의 일과 후에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확인하며 확신을 가지길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 전의 있었던 일들(유월절 전에 성만찬이 있었는데 이 연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이미 맺은 관계도 끊어질 수 있기에) 안 되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죄요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으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므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성찬 예식을 재정하시고 집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과 피, 즉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교훈을 하셨습니다.

- (a)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b)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c) **포도나무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d)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8, 13-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e)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개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택한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신 후(요17:1)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26절)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마태/마가/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음). 그 일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가룟 유다를 제외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스가랴 선지자(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의 사람)의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 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내가”) “목자”(슥13:7)이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면(롬8:32) “양들”(슥13:7)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14:28). 그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29절)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3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힘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31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셋세마네 기도 후에 붙잡혀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서는

붙잡혀 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다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피한 후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눅22:54; 요18:13).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 석에서 심문을 당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뜰에서(요18:15)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닭이 곧 울었습니다(눅22:55-60).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심문을 당하고 계셨으면서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회개)했습니다(61-6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고 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서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겻세마네 기도 (4)

[누가복음 22장 39-46절]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기도의 장소)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마26:36)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37절)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막14:33) 겻세마네 동산 안으로 가서(마26:36-37) 돌 던질 만큼 가서(눅22:41)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마26:37-38) 적어도 세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 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돌 던질 만큼 혼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간격을 두시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께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간격을 두신 것은 성전에 제도와 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들은 겻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시고(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3명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겻세마네 동산 안까지 함께 들어오셔서 그곳에 두시고(제사장의 뜰), 그곳에서 돌 던질 만큼 가서(지성소)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서 거기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1) 법궤[이 안에는 (a) 하나님이 친히 두 돌 판에 쓰신 십계명과 (b)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와 (c)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음], (2) 속죄소[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의 크기로 정금으로 만든

법계를 덮는 덮개(출25:17)], (3) 두 그룹들[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두어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했습니다(출25:18-20; 37:6-9)].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레16:14-19).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거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내가”) 대제사장 아론(“너”)과 만나셨습니다. 즉, 속죄소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을 뜻합니다(출30:6; 민7:89).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 안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 그곳에서 돌 던질 만큼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지성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가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음으로 이젠 우리가 지성소에 자유스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언제나,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롬5:1-2).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십니다(롬8:26-27).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살전5:17).

겻세마네 기도 (5)

[누가복음 22장 39-46절]

언제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기도의 시간)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겻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마26:37-38).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시험이란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즉 흠여지는 것을 말합니다(31, 56절). 그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되(58절)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58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막14:71).

어디서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기도의 장소)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했는데(마26:36) 그 8명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그들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37절)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막14:33) 겻세마네 동산 안으로 가셨는데(마26:36-37) 그 3명의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들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 3제자들이 머물렀던 기도의 장소에서 돌 던질 만큼 가서(눅22:41) 기도하셨는데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8명과 3명의 제자들과 간격을 두시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들은 겻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시고(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3명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겻세마네 동산 안까지 함께 들어오셔서 그곳에

두시고(제사장의 뜰), 그곳에서 돌 던질 만큼 가서(지성소)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서 거기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1) 법궤[이 안에는 (a) 하나님이 친히 두 돌 판에 쓰신 십계명과 (b)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와 (c)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었음], (2) 속죄소[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의 크기로 정금으로 만든 법궤를 덮는 덮개(출25:17)], (3) 두 그룹들[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두어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했습니다(출25:18-20; 37:6-9)].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레16:14-19).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거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내가”) 대제사장 아론(“너”)과 만나셨습니다. 즉, 속죄소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을 뜻합니다(출30:6; 민7:89).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 안 속죄소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 안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 그곳에서 돌 던질 만큼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지성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기도하셨습니까?(기도의 자세)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 이 기도의 자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데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셨기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겿세마네 기도의 자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뵈오면서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에 얹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겻세마네 기도 (6)

[누가복음 22장 39-46절]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기도의 내용) 마가복음 14장 35-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참고: 눅22:42; 마26:39).

- (1) 첫 번째 기도 내용: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막14:35-36).

여기서 “이 때”와 “이 잔”은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내용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게(면케, 없게)해 주시길 간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은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연약함이 있으셨습니다(예를 들어, 예수님은 식사하지 못하시면 시장하셨고, 주무시지 못하시면 피곤해하셨음).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들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 죄는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받치는 순교자들은(예를 들어, 야고보, 베드로 등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죽으시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가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만민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값의 형벌을 받으시되 지옥의 고통까지 받으시는 죽으심이었기에 그리 간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에 그리 간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 두 번째 기도 내용: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요구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강력한 요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사53:10,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2절). 이것은 그 나병환자가 주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3절).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이어야 하면 또한 신앙의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요일2:17)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5:14, 현대인의 성경).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3절).

겻세마네 기도 (7)

[누가복음 22장 39-46절]

예수님께서 는 겻세마네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심에 있어서도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공생애 초기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는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사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는 성전을 깨끗케 하셨는데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17절)한 시편 69편 9절 상반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 즉, 주님께서 는 주님의 전을 위하는 열심으로 성전 안을 깨끗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말은 ‘죽였다’란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된 자기 육체”(요2:21)가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모든 죄에게 깨끗케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고전3:16)으로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는 공생애 마지막에 가서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겻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는 열심이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요?(4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심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1)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는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약1:8, 4:8).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으려고 하기보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막8:35). 예수님께서서는 뜻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눅22:42). 예수님께서서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시18:1, 렘16:19)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신8:17).

(2)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온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a)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눈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b)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 예수님께서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 때는 기온이 결코 더웠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운 때였습니다[(요18:18)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찌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찌더라”]. 이렇게 불을 피우고 췌 정도로 추운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땀을 흘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이 간구하신 것입니다.

(c)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서는 눈물과 땀만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열심이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몸 피부에는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구멍이 있기에 더우면 땀이 그 구멍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 간구하셨을 때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땀과 피가 섞여 나와서 땅에 방울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3)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기름을 짜는 틀로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겿세마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마26:36; 막14:32) 누가복음은 “감람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22:39). 감람 산 안에 겿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감람 산”이라고 말씀했냐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 기름을 짜서 빼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에서 진액(눈물, 땀, 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리 간구하신 이유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에서 인내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감람 산 안에 있는 겿세마네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되 기도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째” 기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셨지만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에서야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서 ‘다시 네 번째’, ‘다시 다섯 번째’ 나아가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눅18:1).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때 그 재판장은 만일 자기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늘(계속)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기에 그녀의 애원을 듣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7-8절). 마태복음 7장 7-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내로 기도하지 않고도 즉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4-8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2:1)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4절) 그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4절, 현대인의 성경) 왕에게 대답을 하였는데(5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했습니다(8절)[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음(6:15-16,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7번이나 간구해서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왕상18:42-45). 그리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죠지 몰러 목사님은 25년 동안 기도해도 2명이 친구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응답을 받았습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열심이 그리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까지 열심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이 간구하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까지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열심이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인내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겻세마네 기도 (8)

[누가복음 22장 39-46절]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의 열심입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막12:30). 예수님의 이중 계명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30절)라는 첫 번째 부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간구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온 정액(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눅22:44).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하고 청결한(정액)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흘리는 눈물과 땀은 깨끗하고 청결한 액체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눈물과 땀은 죄가 섞인 액체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기름을 짜는 틀로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눅22:39). “감람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에 그 감람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틀로 기름을 짜서 빼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정액(깨끗하고 청결한 눈물과 땀과 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애간장을 태우는 정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만 간구한 것(눅22:45-46)이 아니라 두 번(마26:42; 막14:39), 세 번(마26:44; 막14:41),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세 번 이상 더 기도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에 멈추신 것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세 번 같은(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마26:44; 막14:39) 같은(동일한) 온 정액(깨끗하고 청결한 눈물, 땀, 피)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의 인내를 본받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의 결과입니다:

(1) 첫째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 자기와 11명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악한 무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막14:42). 그리 말씀하실 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왔습니다(마26:47).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자(39절, 현대인의 성경) 그 큰 악한 무리에게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2) 둘째 기도의 결과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권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그니라”[“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현대인의 성경)](요18:4-6).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셨는데 이렇게 이악한 무리가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주님의 능력(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 이렇게 다른 놀라운 역사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소해 주시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비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45절)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약 27km?)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46절, 현대인의 성경).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므로(11절)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에(10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3) 셋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 그 악한 무리에게 잡히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습니다(8절). 그 악한 무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 온 것인데(제자들도 잡아가서 심문하면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만 잡고 11명의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인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 4,000여 년 전에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의 열심과 인내와 결과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마6:1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길 기원합니다.

잡히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14절]

예수님께서 죽게 되셨을 때 겿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눅22:41). 기도의 자세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마26:39; 막14:35; 눅22:41).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막14:35-36). 기도의 열정은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눅22:44). 기도의 인내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마26:42, 44).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 자기와 11명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악한 무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마26:46). 주님의 놀라운 능력(권세)이 나타났습니다(요18:4-6).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3:1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리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다 뒤로 물러가 엎드려진 것입니다(요18:6).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한 것 외에 이렇게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참고: 마6:33; 왕상3:13, 18:46; 엡3:20).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요18:8).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이 사람들(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므로(요18:8)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9절).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후 붙잡히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 공관복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마26:47),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막14:43),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눅22:52). 여기서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란 성전을 지키는 대장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바로 밑에 바로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입니다. 마태복음(26:47)과 마가복음(14:43)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서기관들”(막14:43)]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22:52)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직접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2) 요한복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요18:3),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12절). 여기서 “군대”란 로마 군인들을 말하고 “천부장”이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인을 대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 공관복음: “칼과 몽치”(마26:47), “검과 몽치”(막14:43; 눅22:52). (2) 요한복음: “등과 햇불과 무기”(요18:3).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입니다: (1) 공관복음: “대제사장 가야바”(마26:57; 막14:54; 눅22:54). (2) 요한복음: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요18:13).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15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큰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피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51절, 요18:10)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리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53). 여기서 “군단”이란 로마 군대의 단위로서 약 6,500-7,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1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의 천사들은 78,000-84,000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는 한 3,000명 정도였습니다[“천부장”(요18:12)은 1,000명의 로마 군인들 + 약 1,500-2,000명 정도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의 하속들 = 2,500-3,000명].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길 구하셨으면 약 78,000-84,000정도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인 약 2,500-3,000명의 사람들로 부터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 큰 무리에게 잡히지 않으시고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1)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신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마26:39, 42, 44; 막14:36, 39, 41; 눅22:42)와 (2)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으며,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잡히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잡히시사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심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1)

[요한복음 18장 28절-19장 16절]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현대인의 성경)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이”(28절)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 데리고 가 심문한 결과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사형을 하되 유대인의 법대로 돌려 쳐 예수님을 죽이기보다 로마인의 법대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성경은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28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관정”(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관저”)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서 비록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직무하고 있었지만(가이사랴에 있는 빌라도의 관정)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빌라도의 “관정”은 예루살렘에 있는 관정으로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절기 때 흠어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 수십만 명(많게는 백만 명이나)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기에 혹시나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안정시키려고 절기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와 직문을 보았던 관정을 가리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새벽”[“이른 아침”(현대인의 성경)]에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으려고 이방 사람 로마인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28-29절). 이 얼마나 거짓되고 형식적이며 외식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입니까.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신성모독 죄로 얽혀 놓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어떻게 해서는 로마인의 법대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유월절 잔치(1주일 동안)에 참여하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였고[(요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더 큰 죄인데[(19:11) “...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 그것도 모르고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되고 형식적이면 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으려고 자신들을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유대인 지도자들로 인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예수님)을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28-29절). 그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람(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30절). 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악한 일”(30절, 현대인의 성경)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일이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마26:63-66).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의 악한 죄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한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66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빌라도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예수님)를 데려다가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했습니다(요18:31).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리 말한 이유는 그는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4 가지 있습니다:

- (1)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은 로마인의 법대로 십자가에 처형해야 할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들은 그들의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눅23:1-2). 이것은 빌라도의 답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4절).

(2)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4)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고발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또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위에서(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취급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 될 것이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3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첫 번째 노력: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2) 두 번째 노력: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왕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10절).

(3) 세 번째 노력: 빌라도는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40절, 현대인의 성경).

(4) 네 번째 노력: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채찍질 등 하게 하여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셔서 살점이 떨어져 피 흘리시는 예수님과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등 온 몸이 피로 물들어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는 아주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동정심을 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4번이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총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참고: (눅23:20)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의 힘이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큰 소리가 이겼습니다[(눅23: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돈을 깡 들(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고(요19:13)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할 것은 선언했습니다(눅23:24,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사람, 곧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큰 소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 복음(the original gospel)[구약성경 최초의 메시아적적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사(마1:18) 낳은바 되신(25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사탄이 자기의 후손(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은 “법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고자 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요나 1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진바 되는 것이었는데(욘1:12, 14) 불신자 사공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리신 “큰 폭풍”(12절)과 싸워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13절).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13-15절). 그 때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는 살려주셨습니다(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엡2:1,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요3:16).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로마서 8장 1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2)

[요한복음 19장 13-16절]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장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1) 첫째 이유는,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은 로마인의 법대로 십자가에 처형해야 할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들은 그들의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눅23:1-2). 빌라도의 답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4절). (2) 둘째 이유는,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 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셋째 이유는,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4) 넷째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고발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또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위에서(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취급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 될 것이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3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나?’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재판을 한 이유는 원고 측에서 강력하게 나왔기에 때문입니다.

원고는 가야바 대제사장 및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법정이었습니다(인터넷). 공회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으로 요셉 가야바였고 그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 구성원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마16:21). 재판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던 반면에(요19:12) 원고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원고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로서(49절) “한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어서 온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한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는 장으로서 그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기에(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만일 그(예수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48절). 그러나 원고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현대인의 성경)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원고 측에서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모의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64절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셨습니다(61절).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현대인의 성경)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6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62절, 현대인의 성경). 그 예수님을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을 때(64절)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셨습니다(64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한 원고 측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돌로 쳐 죽여야 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기에(신21:23; 갈3:13) 그렇게 선전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피고이셨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기셔서 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비록 죄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마1:18, 20)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던 것입니다(요18:38; 19:4, 6). 피고이셨던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시험에 쳐서 죄가 있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고로 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고인 대제사장 가야바나 재판장인 로마 총독 빌라도나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8-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또한 이방인들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재판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현대인의 성경) “유월절 전날”]이었고 재판 시간은 “제육시”[(현대인의 성경) “정오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 비록 이 사실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공관복음)의 기록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반영하여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성경 무오성을 믿음으로 전제(presupposition)하는 자들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12:6),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시19:7),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잠 30:5). 성경의 순전함과 완전함에 대한 이 구절들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책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감의 과정을 통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3:16, 벧후 1:21; 롬 1:2 참조)(인터넷).

재판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장 로마 총독 빌라도가 원고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19:14)라고 말하니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 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 복음(the original gospel)[구약성경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사(마1:18) 낳은바 되신(25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사탄이 자기의 후손(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1)

[누가복음 23장 26-32절]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마가복음 15장 21-22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에 이르러.” 여기서 “골고다”(마27:33; 막15:22; 요19:17)란 곳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곳에서부터 한 700미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을 “해골의 곳”(마27:33; 막15:22) 또는 “해골(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요19:17)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곳이 위해서 보기에 해골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판에서 사형선도를 받으셨기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한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1)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일(눅23:26)과 (2) 백성과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27절) 예수님께서서는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일(28-31절)과 (3)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간 일입니다(32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로마군인들)을 가리키며, “예수를 끌고 갈 때에 ... 십자가를 지워 ...”란 말씀은 그 당시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이며 그 당시 “시몬”이란 이름은 좋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습니다(마10:2, 4). 이렇게 “시몬”이란

이름이 많았기에 구별해 주기 위해서 “시몬”이름 앞에 지명이 있었습니다[예: “가나나인 시몬”(4절). 여기서 “가나나인”이란 그 “시몬”이란 사람의 지명임].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란 말씀(눅23:26)에서 “구레네”는 시몬이 살던 지방 이름인데 이 “구레네”란 지방은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인 리비아의 수도 이름이었습니다[(행2:10) “...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현재 리비아의 트리폴리(tripoli)를 말합니다(박윤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리비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약 270-280km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약 1달 걸렸을 것임).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붙들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억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27: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막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기에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형장까지 억지로 지고 간 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에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정은 축복을 받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귀히 쓰임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님은 속죄성업에 수고는 오직 그가 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므로 이에 공로를 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들의 일을 억지로 돕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1,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36장 3,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2)

[누가복음 23장 26-32절]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1)”이란 제목 아래 골고다 도상에 있었던 일 중에 첫 번째 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일에 대해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로마 군인이 징집되어 가지고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로로 된 막대기와 세로로 된 막대기(나무)인데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로로 된 십자가는 형장에 세워져 있었고, 가로된 막대기(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무게가 20kg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골고다까지는 험악한 언덕길이었지만 그래도 30대 청년 같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로서 채찍을 많이 맞으셨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겿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진액을 다 쏟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밤새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라든가,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을 당하시고 재판 받으시느라고 다른 죄수들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 골고다 형장까지 가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골고다로 가시면서 뒤따라오는 백성과 특별히 여자들에게 하신 누가복음 23장 28-31절 말씀 외에는 한 마디로 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형장까지 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3시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3시간 동안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 받으시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과연 심문을 받으셨던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이 없으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믿게 되고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라고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골고다 도상에 있었던 일 중에 두 번째 일인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28절).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자들은 제자들(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었음)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골고다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은 누가복음 8장 1-3절의 나오는 여자들이 아닌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들의 눈물이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그 여인들이 흘린 눈물을 예수님에게는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는 목사님은 이것은 유대 장례 풍습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들도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인들의 눈물이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잉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잉태를 못하니까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아기를 해산하지 못했으니까 아기를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서 “그 때”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어째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41-44절의 재난/화/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것, 식구들이 적은 것이 더 복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셨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악하고 또한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후 누가복음 19장 43-44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네 원수들”은 로마 군을 말하고 “토둔”이란 예루살렘은 사방에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이중삼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 높은 탑과 튼튼한 돌 벽으로 둘러싸인 성채가 우뚝 솟아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인터넷)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쳐들어 올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토둔”[(현대인의 성경) “독을 쌓고”]을 쌓았습니다. 즉, 그들은 작은 언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안에서는 사람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할 수가 없었기에(자살하면 지옥에 가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 가지고 자기들을 덮어서 깔려 죽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따라 오던 사람들과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심문하고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푸른 나무”이신 의로우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악한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31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지도를 따라서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고, 예루살렘을 위해 울었던 사람들은 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와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에게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동부 요르단 지방에 있는 펠라로 불리는 베레아로 피신하여 거기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인터넷). 그리고 나서야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함락시켜 예루살렘을 초토와 시켰습니다. 그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약 27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전쟁에서 죽은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 저항군들은 마사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꿈쩍도 못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과 지진과 재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23:28)는 말씀을 받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후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운동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점점 더 환란이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더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울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 (3)

[누가복음 23장 26-32절]

골고다 도상에 있었던 첫 번째 있었던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일입니다(눅23:26). 두 번째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간 일입니다(27절). 세 번째 있었던 일은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간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여기서 “두 행악자”란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요19:18)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강도 둘”(마27:38) 또는 “강도들”(44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막15:2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도가 받을 형벌은 십자가형뿐 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여 간 것을 보면 그들을 흉악한 강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요11:41-44)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45절).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46절).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 말했고(47-48절), 그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으며(49-52절), 결국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53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이 겔옷을 벗어 길에 퍼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마21:7-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10절).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11절). 여기서 “선지자”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을 고쳐 주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소?”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마21:14-16,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1:16). 결국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11절)는 말대로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나(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요11:53,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고(눅23:2,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하고(4, 14, 22절) 예수님을 놓아 주고자 노력했지만(20절)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므로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23절).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은 선언하였으므로 그들이 요구한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24-2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다른 두 행악자들[흉악한 두 강도들(마27:38, 44; 막15:27)]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암리에 예수가 저 두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사람임을 군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38-42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사형수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흉악한 강도와 같은 사형수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흉악한 강도와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헌신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 (1절)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 (2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 (3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 (4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제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

[마가복음 15장 21-32절]

마가복음 15장 22-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란 예수님이 못 박히신 형장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마27:33), “해골이라 하는 곳”(눅23:33), “해골(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요19:17). “해골이라 하는 곳”(눅23:33)을 킹제임스 성경은 “갈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몰약은 식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쓸개는 동물에서는 나오는 것으로서 다르지만 같은 것은 둘 다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흉악범에게 마취 성분이 든 술을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목적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형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인터넷).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은 다 마셨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마27:34).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엄청난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게 당하셨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영적인 고통도 맑은 정신으로 다 당하시고자 자신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진통 역할을 하는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24,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은 영광을 얻은 때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성업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셔서 들 고통을 당하시고 몽롱한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 삼시”(25절), 즉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을 때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정도쯤 되었다”(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치 한국의 양력과 음력의 차이와 같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시간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전제는 성경의 무오성(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기에 이 충돌에 보이는 차이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손과 양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에 적힌 죄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막15:26, 현대인의 성경).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었습니다(27절). 또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19:23-24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드릭슨 목사님이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네 조각”을 (a) 머리 두건과 (b) 신발과 (c) 허리띠와 (d) 겹옷이라고 말한 후 4명의 군인들이 각각 하나씩 가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군인들이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에서 예언한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15장 29-3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9-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지나가는 자들은”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희롱 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 두 가지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마27:40). 이들의 말에 가세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42-43절). 이 조롱 내용을 보면 그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두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스스로 구원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3:17)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사(사53:10) 결국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소리(마27:46)조차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딤펴2: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습니다(마27:4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되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

[마가복음 15장 21-32절]

마가복음 15장 22-2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장인 해골의 곳, 즉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에게 줘서 고통을 덜 당하도록 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마취에 취하지 않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감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도들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사 성자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분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히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우리도 성숙한 믿음 또는 충만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참고: 막8:35; 15:23; 빌1:29).

요한복음 12장 23-24,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서 가서 여쭙습니다(요12:1, 12, 20-22). 그 여쭙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23절).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23절)과 (2)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24절). 여기에 “많은 열매”란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뵈게 해 달라고 간청했던 헬라인들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다 구원하시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기에 영광이란 말씀입니다(23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생(탄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1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강생(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요12:28).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28절)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11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러므로”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를 가리킵니다(8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9-11절).

요한복음 12장 32-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늦 밤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밤에 물린 자마다 그 늦 밤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모세가 늦 밤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둔 것같이(민21:9)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사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요3:14; 12:32-33).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12:3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들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이끄시듯이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걸음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브라임”)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광야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시사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시기까지(요10:11, 15)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 이끌어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12:28).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자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충분히 고난을 받으셨기에(막15:22-24)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요12:2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요12:28)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의 강생(탄생)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예수님의 강생/탄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시작(탄생)과 끝(죽으심)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사람이 되었을 때부터(새 생명의 시작)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벨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히11:4, 현대인의 성경) 우리 자녀 후손 및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3)

[마가복음 15장 21-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3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43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산헤드린 공회원들로서 유대의 지도자들인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37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욱하더라.” 이 일곱 부류의 사람들[(1) 지나가는 자들, (2) 대제사장들, (3) 서기관들, (4) 장로들, (5) 관리들, (6) 군인들, (7)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모욕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눅 4:1-13) 사역을 끝내시고자(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에도 3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누가복음에서만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받으신 3번의 유혹입니다: (1) 첫째 유혹: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23:35), (2) 둘째 유혹: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36-37절), (3) 셋째 유혹: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39절).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해서 죽지 않으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관리들"(35절), "군인들"(36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39절)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유혹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보다, 사람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비웃고, 희롱하며, 비방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계적 유혹은 먼저 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관리들"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유혹을 한 다음,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군인들"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제일 가까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같은 사람으로도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3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식구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경우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라고 말했습니다(욥2:9).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옴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비웃음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비웃음과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은 이미 시편 22편 6-8절(현대인의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내 백성에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쩌서 그가 너를 구해 주지 않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쩌서 너를 돕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미리(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롬8:30)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롬5: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10절)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대할 때 마땅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새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4, 5절 가사입니다: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고마워 우리 얼굴을 감히 못 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 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었고(슥7:12), 우리의 이마 또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겔3:9).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2절 가사입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우리는 주님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모든 수욕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과 교만한 마음 등 다 버리고 주님이 크는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주님께 받쳐 감사의 눈물 외에도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멸시 천대 받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므로(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2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새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절).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1)

[누가복음 23장 34-43절]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거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요 복음이었습니다(마26:34; 27:11; 막14:62; 15:2; 눅23:3, 28-31; 요18:20, 21, 23, 34, 36, 37; 19:11). 이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고통이 심해서나 괴로우셔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명의 강도들이 골고다로 끌려갔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별의 별 말들을 다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일곱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이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임). (3)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26절)(“자기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임), “보라 네 어머니라”(27절)(“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임). (4)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막15:34)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임). (5)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6)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7)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일곱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27:46)과 마가복음(15:34)은 똑같은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마태/마가/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이렇게 사복음(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현대인의 성경)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말씀으로서 기도의 말씀입니다(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이셨고, 기도의 내용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우리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참고: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절 가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는데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는 말씀(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22절).

성경은 용서받는 죄가 있고 또한 용서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현대인의 성경)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신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행2:38) 구원을 받았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1, 7)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21: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신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롬8:34).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도 영원하신 영원히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서는(24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딤후2: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눅23:34)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롬8:26-27)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34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사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합니다(눅3:3). 전파하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행2:14-36).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37절)라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38-39절, 현대인의 성경). 또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야 합니다(16:31). 그러므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집안 식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33-34절). 그리할 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므로(중생) (엡2: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눅15:32, 현대인의 성경).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가사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찬양 드리십시오: (1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 열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표요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고전2:2). 우리 모두 험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 사하시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모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2)

[누가복음 23장 34-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게”와 “네가”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39절), “강도 둘”(마 27:38)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왼편에 매달렸던 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눅23:33, 현대인의 성경). 그 당시 강도가 받을 형벌은 십자가형뿐 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그들은 강도 중에 강도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이와 같이”란 그 두 강도들도 앞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의 희롱한 것과 같이 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43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하였고”]. 이 두 강도들 중 한 명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현

대인의 성경)](눅23:39). 그 때 다른 강도 “하나”는 “그 사람”(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꾸짖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였다”](40-41절). 이렇게 말한 후 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42절).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이 강도는 이 귀한 진리,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43절). 여기서 “낙원”이란 천국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27장 41-44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을 때(44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처럼 예수님에게(41절)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라고 말했을 텐데(42-43절,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23장 39-41절을 보면 그 두 강도들 중 한명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하며 예수님을 모욕”했고(39절, 현대인의 성경)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한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40-41절). 어떻게 예수님을 욕했던 두 강도들 중 한 명은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라고 예수님을 모욕(비방)한 반면에(39절)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한 그 강도를 꾸짖은 후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을까요?(42절) 예수님을 모욕(비방)한 강도가 말한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39절, 현대인의 성경)란 말은 ‘진정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과 우리(두 강도들)를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 사형(형벌)을 당하지 않고(죽지 않고) 살게 하라’는 조롱이 섞인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꾸짖은 다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의 벌을 받아도 싸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40-41절, 현대인의 성경). 즉, 이 강도는 비록 예수님께서서 자기와 다른 강도처럼 동일한 정죄를 받으셨지만 자신과 다른 강도는 죄를 지었

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아도 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42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비방(모욕)한 다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육신의 구원(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주시사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영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42-43절).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 강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반면에 다른 강도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롬9:15, 18).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 강도는 행악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 박혀 죽은 형벌을 받아도 싹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영생)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새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웃음” 찬양 가사처럼 시온성 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되(요13:1) 행악자 강도 한 사람까지 사랑하시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눅23:43).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행16:31, 현대인의 성경).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3)

[요한복음 19장 25-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27).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들과 한 명의 남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명의 여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말씀합니다. (2) “이모”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아내(마27:56) “살로메”입니다(막15:40).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마27:56)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막15:40)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요19:25)란 여인은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알패오의 아들들이 글로바의 아들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즉, 이름 “글로바”와 “알패오”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설입니다. 사복음서들을 대조하여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세가 글로바의 아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또 작은 야고보를 알패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글로바의 다른 이름이 알패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4)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은 막달라 라는 지방에 사는 마리아로서 일곱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4명의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요19:25). 실제로 그녀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막15:40). 이렇게 처음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많은 군중을 다 헤치고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27절에 나오는 한 명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한 명의 남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9:26)[여기서 “제자”란 단어는 단수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고(막5:37),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으며(마17:1-2),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막14:33). 이 3명의 제자들 중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행12: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7) 말씀하셔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수가 없었고, 사도 베드로도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요13:1)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21절)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었을 때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23-24절).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처럼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막15:40)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도 베드로는 아예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따라야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26절 나오는 4명의 여인들과 한 명의 남자인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박윤선 박사님은 여기서 3가지 뜻을 생각했습니다(박윤선): (1) “예수님은 그 최후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에 있어서도 인륜을 잊지 않으셨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하여 하실 바 책임을 다하셨다. 그는, 모친 부양의 책임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 (2) 그(예수님)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은 영적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에 속한 것들이 모두 다 영에 속한 것을 위하여 수종들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중대한 교훈이다. (3) 예수님은 혈육보다 영적 가족을 더 귀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보다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 영통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 중심한 것이니 만큼, 그것을 위주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한 명의 남자인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성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많은 사람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새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4절).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4)

[마태복음 27장 45-4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제 구시쯤”이란 “오후 3시쯤”입니다(46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다는 의미로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다는 말입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지 않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53:7).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문과 재판을 받으셨을 때에 잠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워졌을 때’(마27:45, 현대인의 성경) 잠잠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45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21-23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이 9번째 재앙을 보면 애굽 온 땅 위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22절, 현대인의 성경)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23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위에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마27:45, 현대인의 성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온 땅에 어둠만 임하였고(45절) 아무 빛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9:5)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마27:4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마27:39-40),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며(41-43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을 때에도(44절)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마27:46,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9번째 재앙인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을 강박하게 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멧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므로 그 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12:29-30). 이것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죄 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마27:45, 현대인의 성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45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46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벧전2: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요일3: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 지은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깜깜한 흑암”이란 9번째 재앙을 “3일 동안” 내리셨는데(출10:22, 현대인의 성경)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고(욘1:17, 현대인의 성경),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마27:45) 결국에 가서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계셨습니다(마12:40). 요나 선지자는 그 큰 물고기 뱃속을 “무덤과 같은 곳”(욘2:2, 현대인의 성경) 또는 “죽음의 땅”(6절,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12:40)고 말씀하신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마치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를 밤낮 3일 동안 무덤과 같은 곳 또는 죽음의 땅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신 것처럼(욘2:2, 6, 현대인의 성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 속에 3일 동안 갇히게 하셨습니다[이 죽음의 땅 속에서의 3일을 영어 사도신경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표현을 했음. 즉, 예수님께서서는 진정으로 깜깜한 흑암인 지옥에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임]. 그 이유는 그 깜깜한 흑암인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를 주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신(욘2:4)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빌2:8) 예수님을 땅 속까지 쫓아내신 이유는 영

원한 지옥으로 쫓아낸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인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지시되 땅 속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고전15:48)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가 “그 때 그 우리들이” 1절 가사입니다: “그때 그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과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망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리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크게 소리 지르신 절규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절)라는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예수님의) 절규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3-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예배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잠잠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마27:46).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36절, 특히 34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언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34절 말씀입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언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심문 받을 때도 아니고, 가야바에게 심문 받을 때나 혹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받을 때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심문 및 재판을 받을 때나 혹은 헤롯왕에게 심문 받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형벌을 받을 그 장소인 해골(골고다)에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간 동안(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캉캉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끝날 지경인 오후 3시쯤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하고 말씀”(요19:28, 현대인의 성경)하시고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는데(30절) 그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막15:34).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를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6:9; 눅11:2).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현대인의 성경)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에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죄악을 차마 보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으시며,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가차 없이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가차 없이 내리시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3:17)까지 십자가상에서 버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죄의 값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3:6)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개역한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화폐 중에 단위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개역한글에는 “호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호리”란 사분의 일 앓사리온(1 앓사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16정도에 불과)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인터넷)[지금 미국으로 말하자면 1 센트(cent)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빛진 자가 다 갚고도 단 한 푼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진 자가 마지막 빛 한 푼까지도 모두 지불한다는 것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이기에 빚을 다 갚기까지 형벌을 면키 심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최종적인 유죄 선고를 나타내 줍니다(인터넷). 이 세상에 많은 감옥에서는 빚을 갚고 또 갚고 다 갚다가 돈 1센트(cent)를 못 갚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감옥(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1센트(cent)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아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머리털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머리털 끝 한 부분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큼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한 푼의 죄요 1 cent의 죄요, 머리털 끝 한 부분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현대인의 성경)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침의 사슴' 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 22편의 표제(머리말)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멜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침의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노래라기보다는 예언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면 시편 22편 1절 말씀[“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므로 성취가 되었음] 외에도 또 한 예로 18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24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즉 한 푼(1 센트)같은 죄나 보이지 않는 죄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영혼의 수고를 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만족히 여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큰 죄뿐만 아니라 지극히 한 푼 같은 죄까지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므로(forsaken by God)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forgiven by God)는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 찬양 경배를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5)

[요한복음 19장 28-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마27:46).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서 한국어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46절).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 값으로 십자가에서 버리시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우리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왕의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 예언을 성취하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요일4:8, 16)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시51:5, 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죽으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죽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롬5:10).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바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시되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그 후에”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막15:34)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요19:28)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다 이루어진 줄 아심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마27:34) 또는 “몰약을 탄 포도주”(막15:23)를 드려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를 포도주에 탄 것으로 정신을 희미하게 하므로 고통을 덜 느낄 수가 있기에 예수님을 그 쓸개/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스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마27:48; 막15:36)[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요19:29, 현대인의 성경)]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는데 그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요19:29-30,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신 포도주”와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들 중 대부분 학자들은 같은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신 포도주”와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신 포도주”와 “쓸개 탄 포도주” 및 “몰약을 탄 포도주” 단어의 원어 헬라어가 다릅니다. (2)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성분이 있지만 “신 포도주”는 식초를 탄 포도주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지만(마27:34; 막15:23), “신 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요19:30). 예수님께서서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마취제 성분으로 인해 고통을 덜 느낄 것을 아셨기 때문이요, 식초를 탄 “신 포도주”는 받으신 이유는 고통을 더 느낄 줄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셋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눅22:42)[참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막14:23-24)].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을 받으신 후[“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막15:34)] 식초를 탄 “신 포도주”를 받으시므로(요19:30) 결국 자신의 목마름[(28절) “내가 목마르다”]을 해결하려고 하셨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해하시려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2:1) 우리를 살리시려고(요일4:9)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자(3:16) 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닌 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식초를 탄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요19:28).

새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가사를 보십시오: (1절)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 했건만 너 무엇 하려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 죽을 인생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여(대속하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길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몸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널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6)

[요한복음 19장 28-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대로 다 순종하셔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28절)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9:28). 그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스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마27:48; 막15:36)[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요19:29, 현대인의 성경)]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는데 그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요19:29-30,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예수님을 받으신 “신 포도주”는 (식)초였습니다. 목마르셨던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셨다는 것은 더 목이 마르셨을 것이고, 더 힘드셨을 것이며, 더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존 스토틀(John Stott)란 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몇 초(1분도 안 되서)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스토틀). 그 정도로 신포도주가 독하고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국 성경을 보면 두 단어(“다” + “이루었다”)이지만 원어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비록 이 말씀은 짧은 한 단어이지만 이 말씀에는 많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더 핑크(Arthur Pink)라는 학자는 그의 책 “십자가의 일곱 말씀 연구”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한 마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그는 “또 이 말 속에는 신자들의 확신하는 바의 배경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말 속에서 모

든 기쁨이 발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그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일곱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취된 모든 예언들 중 하나가 바로 원 복음(the original gospel)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인 처녀(동정녀) 마리아를 통해(눅1:34,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으로 잉태(마1:20)되어 태어나실 것(16절)을 예언한 것입니다[참고: (갈4:4,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잉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시사(골2:15, 현대인의 성경)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가두고 봉인하여 천 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계20:2-3) 결국 마지막에는 무저갱에서 유향이 타는 불 못에 던져져서 천 년이 아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실 것(10절)을 예언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여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 죽으셨지만(요 19:30), 예수님께서서는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히2:14-15,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16절).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사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히9:14).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사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히2:14-15,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새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4절과 5절을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바라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요19:30)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골2:15, 현대인의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후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7)

[누가복음 23장 44-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아더 핑크(Arthur Pink)라는 학자는 이 예수님의 일곱 번째 말씀을 “만족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이요 신뢰의 행동이요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만족의 말씀을 일곱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교제로 다시 회복되신 구주를 봅니다. (2) 여기서 우리는 한 의도적인 대조를 봅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봅니다. (4) 여기서 우리는 구주의 절대적인 유일무일성을 봅니다. (5)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피난처를 봅니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봅니다. (7)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참된 안식처를 봅니다. 오늘 이 일곱 개 중 첫 번째인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교제로 다시 회복되신 구주를 봅니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성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에서도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면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셨을 때 그 때에 베드로가 잡으러 온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 버렸을 때(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은 아버지의 저주의 잔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3시간 혹은 6시간 달리시고도 계속해서 이 교제(관계)를 이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캄캄함이 다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뜻: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막 15:33-34).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정결하시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멸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 못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로 화목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지 않고(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끝
 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은 아
 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
 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
 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부자) 관계
 인데 “곧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
 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
 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
 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
 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
 니다[(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
 다. 한 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라
 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크게 두 번 소리 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승
 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5장 42-46절]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50일 후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요7:2). 그 초막절을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출23:16; 34:22).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대 절기 때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외부에서 많은 때에는 약 2백만 명이나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했습니다(마21:9, 15, 막11:9-10, 요12:13). 그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고난 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새벽”이란 아침 한 6시 전후일 것입니다. 그 때 대제사장들이 급하니까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제일 권력이 센 최고의 산헤드린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송사)했을 때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네 말이 옳도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칭 왕이라고 예수님이 한 말과 갖가지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 마디 변명도 없는가?’하고 물었지만(4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5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종려 주일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었는데 왜 여기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나라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시고 평화를 이루고 잘 살게 해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을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고 잘 살게 해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 나라에서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돌이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결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15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16-20절).

마가복음 15장 22-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때가 “제 삼시”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34절 말씀입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 육시” 즉, 오후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땀별에 고난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오후 3시가 되어서는 그 때까지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뜻: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37절).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막15:37; 눅23:46)라고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막15:38). “휘장”은 성소에 2개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제일 좋은 실로 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엮어서 그 휘장을 짠습니다. 그래서 손 등(2 cm)만큼 두꺼웠습니다. 이 휘장은 누가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휘장 앞에 수를 놓았는데 그룹(천사) 셋을 수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천사들이 지키니까 아무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를 막은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다 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성소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단 한번 속죄일 때만 대제사장만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다하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휘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소는 골고다 언덕인데 아니 성 안에 있는 성소에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때는 오후 3시였고 제사장들이 나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1-8절에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1절, 현대인의 성경)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얇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여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므로 그 얇은뱅이가 별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었기에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휘장을 찢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주석가들).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한 주일 산 것을 생각하면 이 양심에 가책되는 게 많고 삶이 너무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45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서 “준비일”이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안식일 전날 으로서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는 상류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대개 2-3일은 살아 있다가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6시간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빌라도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44절).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물었던 것입니다(44절). 그렇게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줬습니다(45절).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때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적어도 이를 동안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요19:32) 죽여가지고 시체를 내준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므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33-34절).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킬로그램 정도 가지고 와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 천으로 싸서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39-40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결국 예수님께서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예언대로 다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박살낸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매를 맞으면 되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없으면 되고, 등등)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기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우리 생활의 표준(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 영광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언하신 그대로 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므로 찬양하므로
그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뵈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

[요한복음 20장 1-1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음 주 수요예배 때에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중심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란 그 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마가/누가복음을 보면 그녀 외에도 적어도 4명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동행했습니다[“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마28:1),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막16:1), “이 여자들”(눅24:1), 즉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23:55)].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막고 봉인하고 있었던(마27:66, 현대인의 성경) “돌”(요20:1)은 큰 돌로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은 큰 문짝 같은 돌이었습니다. 결코 여자들 4명으로는 도저히 옮겨 놓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마28:2) 그 이유는 빈 무덤을 알려주기(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면 그녀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었을 텐데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2절). 즉,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시신(죽은 몸)이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돌이 무덤을 막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리 큰 돌이 무덤을 막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4절). 그들은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4-8절 말씀입니다: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음질하여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4-5절). 그 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씻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6-7절). 수건으로 머리를 싸면 머리 모양이 둥그렇기 때문에 수건도 둥그런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를 씻던 수건도 그래도 둥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자세히 보고 나오니까 사도 요한도 그 때서야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8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9-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요한의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지(8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고전15:3-4)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처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요20:9).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10절). 이렇게 보고만 믿는 신앙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인자(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다른 모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물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3일까지 잘 지키라고 경비병에게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경비병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마27:62-66). 이 사실을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보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현대인의 성경)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29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보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데 그러한 믿음은 흔들리기가 쉬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든든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 합니다(계3:7-13).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우리는 결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므로 주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아니 될 것입니다(14-19절).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쓰인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

[마태복음 28장 1-15절]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요한복음 20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1)”이란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예수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9절)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머리를 싹뚫은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 믿었습니다(6-7절). 성경 말씀(9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5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2)”이란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일요일, 주일) “새벽에”[“미명에”(개역한글)](우리 시간으로 해 뜨기 전이니까 아마 새벽 5시 전후인 듯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을 발라 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3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여기서 “큰 지진”과 그 형상이 번개 같이 빛나고 그 옷은 눈 같이 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4-5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로서(27:65-66) 그들은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28:4). 흥미로운 점은 “큰 지진”(2절)으로 인해 땅이 크게 흔들렸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마치 큰 지진으로 인해 땅이 크게 흔들렸듯이 그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려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헨드릭슨 목사님의 의하면 이 땅이 흔들림과 사람의 흔들림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5장 5-6절을 보면 그렇게 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벨사살 왕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려고 했던 우리들은 천사가 하는 일을 보고 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마28:4). 바로 이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1절). 천사가 그 두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했습니다(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7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6절).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그(예수님)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서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들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8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9-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흥미로운 점은 천사가 그 두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두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1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1-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었을 때 경비병들 중 몇이 (다 도망을 가고 흩어진 것이 아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11절). 여기서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없었던 것과 천사가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경비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12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13절). 그 때 대제사장들은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이 로마 총독에게 들리면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벌을 받을까봐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14절). 그 결과 로마 군인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15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한국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국 성경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면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번역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언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번역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부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사랑하는 형제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떠나보내며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재회하여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3)

[누가복음 24장 1-12절]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두 번 묵상을 했습니다[요한복음 20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1)”, 마태복음 28장 1-15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2)"].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12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3)”이란 제목 아래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지난 첫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입니다(10절).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러 내었기에(28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이 여자들”이 본 것입니다(눅24:1-2). 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돌을 무덤에서 옮겨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사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20:19, 현대인의 성경).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서 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요11:38-40)고 말씀하신 이유는 돌을 옮겨놓아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동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41-42절).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44절).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나사로와 같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놓은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자들”은(눅24:1, 10)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무덤에서 굴러 내었기에(마28:2) 그녀들은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눅24:2-3).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했습니다(4절). 그녀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1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준비한 향품을 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란 단어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당황하다’ 또는 ‘당혹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4절)를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셔 둔 것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56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24:1)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2-3절)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했던 것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들이 당황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 즉 두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그녀들 곁에 섰습니다(4절). 그러자 그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5절).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입니다. 그는 자기 반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 때 사가라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1:8-1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대제사장인 사가라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들을 본 여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24:4-5). 그 때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5-6절). 여기서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과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마16:21),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17:23),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20:19).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눅24:6).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롬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4:25).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칭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자들(눅24:1, 10)은 천사들의 말인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6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세 번 말씀(마16:21; 17:23; 20:19)을 기억했습니다[(눅24:8)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즉, 그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들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눅24:9) 그녀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녀들의 말을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들여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마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머리를 씻던 수건을 보았고 무덤에 먼저 갔던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요20:3-8).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씻던 수건을 보고 믿었지만[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온 그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세 번의 말씀들(마16:21; 17:23; 20:19)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증거들(evidences)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면 안 됩니다(요20:25).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빌3:8).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요1:14).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출3:14)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요1:1).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속성)을 계시고 또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요, 다 동등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고 또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시작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시사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는 시작(탄생)과 끝(죽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 영원하신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김의 삶을 살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성겨야 합니다(빌2:8).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33년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33살에서 십자가의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어리셨을 때에도 고난을 받

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리셨을 때에 피난 생활을 겪으셨습니다(마2:13-18).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갈4:4) 애굽으로 피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 번 피하시고 숨으시곤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셨는데(롬5:6)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16:21).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장소가 예루살렘임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21절).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눅 22:39-46):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눅22:44).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마26:42, 44).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 자기와 11명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악한 무리를 향하여 당대히 나아가셨습니다(마26:46). 주님의 놀라운 능력(권세)이 나타났습니다(요18:4-6).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후 큰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피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요 18:28-19:16).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요:18:38; 19:4, 6) 예수님을 놓으려고 4번이나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서(19:12; 눅23:23)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다른 두 행악자들[흉악한 두 강도들(마 27:38, 44; 막15:27)을 예수님과 함께 끌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암리에 예수가가 저 두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사람임을 군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비웃음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비웃음과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2)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23:43),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19:26),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임)(마27:46), (5) “내가 목마르다”(요19:28), (6) “다 이루었다”(30절),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곱 말씀을 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15:3-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3-17).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고(갈4:4),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롬 5:6)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딤후6:14-15).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려 드려야 합니다.